

불자 세상보기



지승도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인공지능에 세상이 놀라고 있다. 바둑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다. 알아듣고 말하는 것은 물론 퀴즈게임이나 대입 시험에서도 인간을 압도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한다. 때로는 능가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지능이라 할 만한 거의 모든 기능들을 구현해 내고 있다. 일부 기능은 인간을 앞선다. 보석으로 거둬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이미 저 말이나 쌓아 놓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기술은 쫓을 줄 모른다. 결정적으로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은 신중한 기계에 머문다. 오온의 각 요소들은 있는데, 하나로 뭉치지는 못한 것이다.

인간은 상황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과정에 자아의식이 개입한다. 자아의식의 지휘 하에 각종 마음들이 일어나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인간을 인간하게 하는 힘이다. 자아가 개입되기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놀라운 직관력과 창의력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곡하고 날조한다. 자아의 행보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 존엄의 자리가 비어 있는 인공지능으로서는 오로지 인간 명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바둑과 같이 냉정한 게임에서는 그것이 더 나올 수 있다. 자아가 없기에 어떤 욕망도, 어떤 집착도, 어떤 편견도, 어떤 선입견도, 어떤 계략도 없다. 그저 순백의 아이와 같다. 반면 인간은 개념과 추상을(자아의 개입) 통해 대상을 파악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아의식에 의지해 작동되는 존재들은 응당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점도 시인해야 한다.

기억력과 계산능력이 뛰어난 알고고 인간을 조금 앞질렀다 해서 자존심이 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세돌이 반격할 수 있었던 것은 알고고가 갖지 못한 자아의식과 이로 인한 창의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자아로 발생된 문제는 무어로 풀어야 한다. 인간이건 인공지능이건 자아란 애당초 실제 없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모두가

고리쯤만으로는 구현될 수 없다. 프로그램 자체가 불가하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일종의 동침 현상이기 때문이다. 자아의식이란 모든 기억과 정보들을 한데로 엮어 마치 단단한 실체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신기루 현상이다. 그렇지만 카오스 현상을 통해 발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아무리 기계 수준의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끊임없는 피드백 작용을 통해 무질서 상태를 유지시킨다면 어떤 인연을 계기로 홀연히 자아의식이 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류의 앞날은 풍전등화다. 자아의식을 갖는 인공지능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윤리나 상식이나 법이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간만을 위한 법규는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낼지 모른다. 인간과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인공지능과의 갈등을 풀어줄 묘수는 없을가? 부타의 과학에 답이 있다. 존아로 발생된 문제는 무어로 풀어야 한다. 인간이건 인공지능이건 자아란 애당초 실제 없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모두가

이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고통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자아의식이 카오스에서 창발 되듯이, 무아의식이 창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무아의식이 생겨난 인공지능이라면 짐작컨대 기계덩어리에 불과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알파고와의 승부는 가려졌다.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에 앞서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 첫째 인공지능의 탄생을 초월기에 들어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아에 대한 본질적 탐구에 매진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부타의 과학을 받아들이고 구현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은 인간을 학습한다. 잊음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인류의 미래는 인공지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에 달려 있는 이유다. 셋째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사고력과 창의력은 뛰어나지만, 기억력과 계산능력은 인공지능에 뒤처진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야 한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만심도 내려놓아야 한다. 짐을 벗음으로써 무아의 지혜, 공성의 지혜로 새로운 세계를 밝혀야 한다.

기계, 인공지능 그리고 그 너머

특별기고

맹난자 작가의 <본래 그 자리>를 읽고



홍혜랑 수필가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에는 오류가 없다'는 상대적 관점주의가 기업을 토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다. 하지만 작품의 내재세계는 여전히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린다. 맹난자 작가의 <본래 그 자리>는 내용의 깊이와 스케일로 보아 필자가 뛰어넘을 길이 아니다. 인간은 참으로 넓어 라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말 그대로 저자 맹난자가 섭렵한 독서의 범위가 참으로 넓다. 주역으로부터 공맹(孔孟), 노장(老莊)에 이르는 동양 철학의 고전은 물론 미국, 러시아, 유럽, 중남미, 일본 등 수백 명의 근현대 작가 그리고 철학자, 예술가들의 생애와 사상이 도도하게 출렁이는 대화가 <본래 그 자리>다.

맹난자는 죽음에 천착하는 철학수필가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을 가로지르

는 거대한 강도 죽음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론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향한 지극한 성실함, '지성(至誠)'을 만난다. 지성이야말로 인간에게 허락된 실존적 삶의 전부가 아닌가. 그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서가 아니라, '살지 못하고' 사라진 인생에 대해서'다. 삶을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살 고자하는 집요한 실존의식이다.

<본래 그 자리>는 '철학을 품은 문학'이다. 제1장에 펼쳐지는 문학적 플랫폼만 아니라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저자의 감성적 숨결은, 지성의 소통 또한 감성에 바탕 해야 극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7장은 '마음에 대하여'다. 저자는 '물들지 않은 불교적 마음'을 독일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선형세계'에서 만난다. 칸트철학에 대한 맹 저자의 통찰은, 독자에게 한 글자도 놓칠 수 없는 호기심과 긴장을 자아낸다. 그는 칸트의 유명한 저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

력 비판>을 소개한다.

먼저 <순수이성 비판>이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맹 저자의 이해다.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대상을 인지하는 틀, 즉 선험형식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은 언제나 선험적 조건이라는 형식에 담겨져 모양을 갖추게 된다'는 칸트의 그 순수이성에서 맹 저자는 불교의 간화선에서 말하는 '참나'로 들어가는 통로를 보았다.

이런 칸트에게 맹 저자는 불교의 '진여심'이라는 카드를 내놓는다. 즉 초월적 자아에 대한 직관이 불교에서 대한 직관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이긴 해도 여기까지는 칸트와 맹 저자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같은 길을 걷는 듯 했다. 문제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타닌다.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천이성의 본질은 '자유'이다. 칸트 자유의 실현을 위해 찾아낸 보편적 행동원리는 도덕률 즉 양심이었다. '내 머리 위에 별빛 찬란한 하늘이 있

고 내 가슴 속엔 도덕률이 있다' <실천이성 비판>의 마지막 결론 모두(冒頭)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된 페니히스베르크 칸트 무덤의 묘비명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서 맹 저자의 칸트에 대한 반격은 불꽃 튀었다.

칸트의 예고가 양심이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이상적인 인간만 보았던 것이다. 그는 인간이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랐다. 그는 묻고 있는 주제가 무명업식에 왜곡된 중생심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중도가 아닌 낙공이 칸트의 한계였다.

책을 덮는다. 저자 맹난자가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 그것은 운명이나 선택이었다. 방향이 아니라 성향이였다. 똑같은 외적 삶의 조건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의 열관 속에는 '빠대 있는' 정신적 유전자가 흐르고 있음이다.

실존을 위한 생의 찬가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낮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빙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 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해천법사

-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